

탄신 430주년 기념·제37회 군민의 날

의암주논개 대축제

2004

10.15 金 ~ 10.16 土 (2일간)

장수군 일원



■ 주최 :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 장수군 / KBS전주방송총국



의암 주논개 약사



- 1574년(1세) 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에서 탄생.
- 1578년(5세) 부친 주달문 사망 후, 모녀는 한 마을에 사는 숙부 주달무 집에 의탁함. 숙부는 어린 조카를 김풍헌 집에 민며느리로 보낸다는 약조를 하고 금품을 받아 달아남.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논개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했다가 체포되어 장수 관아에 수감됨.
- 1579년(6세) 이른봄, 장수현감 최경회의 심리로 재판이 열림.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돌아갈 곳이 없는 모녀는 침방 관비를 자청, 김씨 부인의 배려로 내아에서 심부름을 하며 살게 됨. 늦가을, 모녀는 무장현감으로 전직된 최경회를 따라감.
- 1582년(9세) 최경회가 영암군수로 전직되자 따라감.
- 1587년(14세) 최경회가 사도시정으로 갈 때 수행함.
- 1590년(17세) 최경회가 담양부사로 재직시 부사의 아내가 됨. 최경회가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 화순으로 갈 때 논개는 고향 장수로 와서 기다림.
- 1592년(19세) 최경회가 전라우도 의병장으로서 장수로 와 의병을 모집하고 훈련시킬 때, 논개는 의병 훈련 뒷바라지함.
- 1593년(20세) 최경회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영전하여 2차 진주성 전투를 할 때 논개는 성안에서 전투의 뒷수발을 함. 성이 함락되고 최경회가 순국한 뒤, 논개는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를 의암으로 유인하여 남강에 투신 순절함.

논개 고을 푸른 장수

|| 군민헌장

우리 장수군민은 자랑스러운 삼절의 빛난 얼을 계승하고 밝고 맑은 심성으로 산자수명한 내 고장을 풍요롭게 가꾸는 주인이 된다.

1. 우리 군민은 자유를 존중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민주문화를 꽃 피운다.
2. 우리 군민은 양심과 신의를 지키고 협동봉사하며 공공질서를 생활화한다.
3. 우리 군민은 근면 성실하며 진취적인 의지로 잘사는 내고장을 개척한다.
4. 우리 군민은 심신을 연마하여 건전한 취미와 정서순화로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5. 우리 군민은 전통문화를 계발하고 서로 화합하여 내 고향 사랑에 앞장선다.

|| 군정방침

화합으로 하나되어 일류되는 장수

- | | |
|-------------|------|
| 1. 특성을 살리는 | 경영행정 |
| 1. 보람을 이루는 | 농업발전 |
| 1. 모두가 잘사는 | 복지향상 |
| 1. 자연과 어우러진 | 관광개발 |



군의 심볼



군의 나무 / 소나무



군의 새 / 비둘기



군의 꽃 / 산철쭉



장수의 노래

이기반 시
이준복 곡

mf F B^b C F

장 안 산 굽 이 굽 이 힘 찬 맥 박 - 이

mf g A d C^b C F

골 마 다 즐 기 차 게 흘 러 넘 치 - 니

C C^b F D^b D g

정 답 게 아 - 름 다 운 우 리 의 터 - 전

C A^b d C F^b *mf*

행 복 의 씨 앓 뿌 러 서 로 가 꾸 - 세 장 하

F F B^b b^b F

고 - 거 룝 하 다 삼 절 의 고 - 장 새 립

C g C *mf* F

게 - 빛 을 내 는 희 망 의 장 - 수

2. 분수령 맑은물에 인심도 좋아
복되게 이어받은 조상의 유산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로 뭉쳐
이땅의 낙원으로 번영이루세

(후 령)
장하고 거룩하다 삼절의 고장
새롭게 빛을내는 희망의 장수



의암 주논개 대축제 일정표

구분	오 전	오 후	야 간
10_15 (금)	<공설운동장> ■군민체육대회(10개종목) 09:00~17:00 • 축구, 배구, 씨름, 협동줄넘기, 삼절마라톤, 공차고돌아오기, 투호, 고리걸기, 공차넣기, 400m계주	<의암공원> ■마당극 17:30~18:30 • 청아 청아 내딸 청아	<의암공원> ■전야제 19:00~22:00 • 전야 축하공연 • 불꽃놀이
10_16 (토)	<의암사 영정각> ■주논개 제례봉행 09:00 <의암공원> ■기념식 10:00 ■주논개충절무공연 11:00~11:30 ■호남좌도농악시연 11:30~12:00	<의암공원> ■주논개진혼무공연 12:00~13:30 ■주논개 선발대회 13:30~18:30	<의암공원> ■군민화합 한마당 19:00~22:00 • 군민노래자랑 • 초청가수공연 • 달집태우기 • 강강수월래 • 화합음식나누기
부 대 행 사	■의암백일장(의암사경내) : 10.8 (10:00~16:00) ■제3회 장수논개마라톤대회(장수공설운동장) : 10.10 ■무진장게이트볼대회(노하게이트볼장) : 10.15 ■군수배 테니스 대회(장수테니스장) : 10.16 ■한시백일장(장수향교) : 10.16 (10:00~16:00)	■경노잔치(의암사 잔디광장) : 10.16 (11:00~13:00) ■전북 남녀 궁도대회(벽계정 궁도장) : 10.16 ■논개배 탁구대회(백화여고 강당) : 10.14~15 ■향토음식맛자랑품평회(의암공원) : 10.16 (11:00)	
상 설 행 사	■전통문화 예술체험관(의암공원) ■장수사과 특별기획전(의암공원) ■풍물야시장(의암공원 주차장)	■전국 사진공모전 및 촬영대회(관내 행사장) ■사진·시화·서예전시회(의암사 잔디광장·군민회관) ■역사속의 논개이야기(의암공원)	

논개는 이름, 호는 의암, 성은 신안 주씨이며,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마을에서 아버지 주달문과 어머니 밀양 박씨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가문은 대대로 학덕이 높은 훈장집으로 동민의 존경을 받았던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 특이하게도 논개는 4갑술(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 -1574.9.3. 밤)의 사주를 타고 태어났다. 아버지 주달문은 딸아이의 사주를 짚어보고 계집애지만 크게 될 인물이라고 기뻐하였다. 이름을 논개라고 지은 것은 딸을 술(戌)시에 낳았으니까 개를 놓은(낳은의 사투리) 것과 같고, 거꾸로 읽으면 '놓은 개', 즉 '논개'가 되므로 그렇게 이름 붙이면 역신도 시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였다. 논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하여 부모의 가르침



을 잘 따랐으며 나이에 비해 성숙하였다. 가난했지만 화목한 가정이었다. 논개 나이 다섯살되던 해에 뜻하지 않게 아버지를 여의었다. 의지할 곳 없던 모녀는 한 마을에 사는 숙부 주달무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그런 어느날, 숙부는 노름으로 돈을 탕진하고 이웃 마을에서 밥술깨나 먹고 사는 김풍헌에게 찾아가서 조카를 민며느리로 몰래 팔고 달아났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논개 모녀는 부랴부랴 외가로 일시 피신했으나 김풍헌의 제소로 장수 관아로 끌려가 재판 받게 되었다. 이때의 재판관은 최경회 현감이었다. 최현감이 자초지종을 캐보니 달아난 숙부 주달무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논개 모녀를 무죄 방면했다. 그러나 갈 곳 없는 두 모녀를 최현감은 내아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지내도록 배려했다. 이런 운명적인 인연으로 최경회와 논개는 만나게 되고 최현감집 식솔이 되었다. 논개는 잔심부름이 끝나는 대로 툼툼이 김씨 부인이 일러준 충·효·열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겼다.

의 암 주 논

세월이 흘러서 논개 나이 17세가 되던 1590년 최경회가 담양부사로 재직할 때 두 사람은 부부의 예를 올렸다. 그 해에 최경회는 모친상을 당하여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 화순으로 가면서 논개를 고향 장수로 보냈다.

2년뒤 임진년(1592)에는 역사상 980여회의 외침중 가장 처참했다는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상종인 최경회는 전라우도 의병장이 되어 옛날 현감을 지냈던 장수에 들러 의병을 모집하고 논개도 만났다. 실로 2년만의 해후였다. 최 의병장이 월강리 앞 들판에 의병청을 설치하고 의병들을 훈련시킬 때 논개는 동네 부인들을 모아서 의병들의 수발을 들었다. 최 의병장은 훈련된 500여 정예 부대를 골(鶻)자부대로 이름짓고 무주 쪽으로 진격한 뒤 무주 우지치전투에서 첫 대승을 거두고 여세를 몰아 산음, 지례, 개령, 성주 등 경상도 일대를 누비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1592년 10월, 1차 진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된 데에는 최경회가 이끄는 호남출신 의병들의 성 외곽에서의 맹활약이 크게 주효했던 것이다. 최경회는 그간의 의병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1593년 4월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영전되어 진주성으로 입성했다. 그 소식이 장수에 머물고 있던 논개에게도 들려왔다. 논개는 벅찬 가슴을 억누르고 한시 바빠 진주로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남북으로 변장을 하고 진주로 가는 도중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오랜만에 논개를 본 최 병



개 일 대기

사는 한없이 반가웠지만, 회포를 나눌 겨를이 없었다. 10만이 넘는 왜군이 진주성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비책을 강구하느라 동분서주해야 했던 것이다.



6월 19일, 드디어 왜군은 10만여 대군을 사방으로 나누어 진주성을 본격적으로 공격해왔다. 11일간의 피비린내 나는 혈투 끝에 진주성은 무너지고 7만에 가까운 민관군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성은 아수라장으로 초토화됐다. 최경회, 김천일, 고종후 등 진주성 3장사는 성이 함락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왕이 계신 북쪽을 향해 하직인사를 올린 후 도도히 흐르는 남강에 투신 순국했다.

한편 전투가 한창일 때 논개는 성안에서 수발을 열심히 들었지만, 성을 빠져나가 후일을 도모하라는 최병사의 엄명에 성을 빠져나와 외진 곳에 은신하면서 전황을 살폈다. 성이 함락되고 최경회 병사가 순국했다는 소식을 접한 논개는 무엇인가 비장한 결심을 했다. 마침 칠월 칠석에 왜군이 축석루에서 진주 관기들을 불러놓고 전승 축하연회를 갖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논개는 이때를 놓칠세라 마음에 다지면서 관기들 틈에 끼여 연회장까지 들어갈 요량으로 관기들이 축석루에 들어가는 시간과 길목 등을 정확히 알아두었다. 그리고는 몸에 지니고 있던 금불이로 여름옷 한 벌을 곱게 장만하고 가락지 등 필요한 물건도 구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논개는 관기처럼 곱게 단장하고 시간에 맞춰 길목에 서 있었다. 논개는 관기들이 축석루를 향해 들어갈 때 뒤에서 천천히 따라 가다가 발길을 돌려 축석루 아래 강가의 바위 쪽으로 내려갔다. 연회장으로 가면 정체가 탄로날 위험성이 있으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요염한 자태를 드러내어 상대방을 유인해보자는 계략이었다.



연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술에 취한 왜장들이 문득 강가의 바위 쪽을 내려다 보았다. 웬 선녀처럼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강가의 바위끝에 서서 자기들을 바라보며 미소짓고 있는 것이었다.

왜장들은 한눈에 반하여 금시라도 여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정체를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다. 돌연 육척장신의 체격이 장대한 왜장 하나가 논개 쪽으로 다가가면서 자기에게로 오라며 소리쳤다. 논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손짓을 하면서 왜장을 유인했다. 왜장은 논개의 아름다운 자태에 매혹되어 자기도 모르게 논개 앞으로 다가갔다. 논개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가락지를 낀 팔을 벌려 기쁘게 맞이하면서 왜장을 껴안으며 도도히 흐르는 남강에 투신 순절했다. 논개가 살해한 왜장은 힘세고 용맹스럽기로 유명한 맹장 게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였다. 논개가 순절한 바위를 후인들이 의암이라 이름짓고 논개와 동일시하여 호가 되었다.

| 식사 |

오늘은 충·효·열(忠·孝·烈)의 화신(化身) 의암 주논개 탄신 430주가 되는 날이요, 제37회 군민의 날입니다.

이런 뜻깊은 날을 기리기 위하여 마련한 축제 행사에 바쁘심을 뒤로 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군민과 더불어 먼길 마다하지 않으시고 동참해 주신 출향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최고 영예인 군민의 장을 수상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진왜란 당시 그 많은 죽음 중에서도 후세에 가장 뚜렷한 영향과 의미를 남겨준 인물은 해전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과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순국한 의암 주논개일 것입니다.

우리가 님의 순절을 충·의·열(忠·義·烈)로 기리는 이유는 여자의 몸으로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초개처럼 던졌을 뿐 아니라, 겨레의 원수였던 왜장을 껴안고 순국했다는 사실 때문에 님의 우국충절을 기리는 것이며,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는 오히려 영원히 역사 속에 부활하여 민족의 혼을 일깨운 승리의 삶을 살다간 의녀(義女)이며 시대를 넘어 겨레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의 행사는 제례봉행을 비롯하여 주논개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의암공원을 비롯하여 군내일원에서 2일간에 걸쳐 펼쳐집니다.

우리 모두는 주논개의 숭고한 애국단충의 뜻을 받들어 너와 내가 아닌 하나로 화합하여 논개고을 푸른장수 발전에 다같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의암 주논개 대축제와 군민의 날 행사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오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16일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장 김진영

| 기념사 |

-영원히 살아있는 의암 주논개!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제37회 장수군민의 날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풍성한 가을을 맞아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대축제가 시작됨을 군민 모두와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에서 장수군의 명예를 드높여 군민의 장을 받으신 세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역사적으로 국난의 혼돈기였던 1500년대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져버린 충절의 여인 논개님이 일본군의 전열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군민은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전해산·박춘실·문태서·정원길장군 등이 그랬고, 백용성조사와 정인승박사가 또한 그랬습니다.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한 잔다르크가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의암 주논개님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는 하고자 하면 안될 일이 없습니다.

『장수사과』, 『장수한우』가 장수를 상징하듯 미래로 가는 장수는 희망과 발전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군민대축제를 통해서 군민의 기상을 드높이고 군민이 화합하여 일류를 만들어 갑시다.

끝으로 오늘 하루 동안 치러질 대축제에 장수군민 모두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4년 10월 16일

장 수 군 수

| 환영사 |

황금들판과 코스모스 일렁이는 분홍들길.

새파란 가을하늘이 아름다운 계절에 의암 주논개 탄신 430주년 기념 대축제를 열게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의 시기에 나라를 구하고자 왜장을 안고 남강에 몸을 던져 열아홉 꽃다운 젊음을 바친 의암 주논개.

살신성인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논개는 오늘날 열녀를 넘어 의인으로 평가되며 역사의 중심에서 한국사를 바꾼 여인으로 손꼽힙니다.

우리 민족의 얼을 대변하는 역사적 귀감이 되는 논개의 숭고한 정신은 430년이 지난 오늘에 이어져 그 역사성과 문화, 예술성을 두루 갖춘 전국적인 행사로 다시 꽃피고 있습니다.

아녀자는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일부종사, 정절하는 것 외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던 전통사회에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자 일어난 나이 어린 여인의 의와 얼은 이기주의와 자기본위로 치닫는 현대에 의미있는 교훈을 남깁니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자신이 처한 작은 환경에서 정의를 위해 흔들림 없이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에 되살려야 할 논개정신일 것입니다.

고귀한 의암 주논개의 정신을 잇는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뤄지기를 바라며 전국적인 대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수고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10월 16일

KBS전주방송총국장 오태수

| 축사 |

풍요로운 한가을에 논개탄신 430주년을 기념하고 군민의 단결을 다짐하는 「의암 주논개 대축제」를 갖게 된 것을 의의있게 생각합니다.

장수는 일찍이 항일정신이 투철하며 우국충정이 충만된 고장으로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곳곳에 왜적을 물리친 유적이 있고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어 장수군민의 긍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논개 열사의 순국정신은 43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슴에 각인되어 오래오래 추앙되고 있으며 영원한 우국충정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듯 자랑스러운 고장에 사는 여러분은 발전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항상 창의와 연구를 거듭하여 지역 농산물의 특화와 소득증대를 향한 무한한 경쟁을 극복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암 주논개 대축제를 계기로 다시 한번 결의를 확고히 하면서 장수군민의 자랑을 창출하고 키워나가 줄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대축제가 장수군민의 농사에 지친 마음을 즐거웁게 풀어주고 신나는 축제의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장수군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 축사 |

-의분과 충절의 기상을 이어받아 오늘을 극복하는 계기로

이제 민족의 명절인 추석도 지나고 가을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시달리던 여름이 바로 어젠데, 어느덧 넉넉하고 풍성한 정(情)이 넘치는 계절이 무르익어 갑니다.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는 담장 너머 수줍은 듯 고개를 내밀고, 대청마루 밑에서 찌르르 울어대는 풀벌레 소리가 풍족한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수는 의암 논개님을 비롯한 열녀 원씨 부인, 정인승 선생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고귀한 기상과 충절이 넘쳐흐르는 의와 충절의 고장입니다. 아름다운 심산유곡(深山幽谷)과 함께 충효의 전통은 장수인의 긍지이며 자부심입니다.

‘의암주논개 대축제와 장수군민의 날 행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다 않은 주논개님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선양하고, 장수군민의 화합과 단합의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그동안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상호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장수정신을 형상화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확실히 자리잡고 있어 매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흙탕물결 잇빨 아삭이며 겨레의 가슴에 높이든 햇불, 영원한 성녀 구원의 여신입니다.’라고 노래한 우리고장의 향토시인 고두영님의 시처럼 논개님의 나라사랑은 지난날 모진 바람에도 다시 피어나는 들꽃처럼 장수군민들의 마음 속에 심어져 있습니다.

현재 농촌은 인구유출로 인한 고령화, 냉해·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으로 가을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누리기에 현실이 그리 밝지 못합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WTO농업협상 등이 가져올 변화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난(國難)을 맞으면 충효와 충절을 바탕으로 분연히 일어난 우리 장수인의 의지와 기개가 살아있는 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지금 장계면에 건설중인 경주마 육성목장은 국내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이며, 천천면 월곡리에는 국제규격을 갖춘 승마장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장수가 말의 고장으로 거듭난다면 장수사과와 함께 장수말(馬)이 지역을 대표하는 자원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지금 이 조금 힘들어도 참아 이겨내기 위한 슬기를 모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 지친 어깨를 보듬어 주는 위로의 장(場)이 되는 한편,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대동(大同)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논개정신선양회의 김진영 회장님을 비롯한 장수군 공직자 여러분과, 그 밖에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16일

국회의원 정세균

| 축사 |

국화향기 그윽하고 산야의 초록이 오색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가을, 10월의 중턱에서 「탄신 430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및 제37회 장수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막바지 가을걷이에 여념이 없음에도 바쁜 일손을 잠시 뒤로 하고, 장수군민의 대화합과 의암 주논개님의 탄신을 기념하기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신 군민 여러분을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아울러 1년 동안 여러분의 정성어린 노력과 값진 땀의 대가로 풍작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서 더없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또한, 비록 몸은 고향을 떠나 있지만, 삶의 역경속에서도 열심히 생활하시며 언제나 정든 내고장, 장수를 잊지 않으시고 몸으로 마음으로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각 지역의 출향인사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에 무한한 감사와 환영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의암 주논개대축제는 장수군의 유일한 축제로 그동안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흥겨운 한마당 잔치의 장으로서 년년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젊은이들의 이농으로 인하여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은 증가하여 축제의 규모와 열정도 점점 빛을 잃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비단, 축제에 국한되는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의 인구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인구가 없는 지역은 유통과 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해 경제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유입시키는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반 정책지원과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효과 기대와 군민의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년이면 전국적으로 수많은 축제가 열립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특색을 접목시켜 타 지역 행사와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독특한 구상과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는 그 지역의 주민을 하나로 결속시켜 주는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지역민의 정열과 혼이 깃들여 있습니다. 우리도 보다 더 생산적이고 활발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우리의 축제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접 결부된 지역경제와 농촌경제는 더 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분권화를 도모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요구로 중앙부처기관의 지방이양을 자기 지자체에 유치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과 예산의 우위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구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인 서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확산이 중앙의 권력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울 수는 있겠지만, 그 뒤에는 냉정한 생존전략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경쟁해야 하며, 그 경쟁에서 결코 우위에 서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발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 장수군이 되기 위해서는 온 군민이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에 지난날 보여준 열정보다 열배 백배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탄신 430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및 제37회 장수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군민 모두는 호국의 일념으로 왜장을 안고 순절한 주논개님의 정신을 선양하고 서로 화해와 협력으로 일치단결하여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축제에 다함께 참여하여 즐겁고 의미있는 일정을 보내시고 자랑스런 군민의 장을 수상하신 세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행사를 위한 준비와 진행에 노고가 많으신 논개정신선양회와 관계하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만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16일
장수군의회 의장 양해도

| 축사 |

지난 여름의 그 무덥던 더위를 이겨낸, 누런 황금들녘의 풍요로움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의암 주논개 대축제'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장수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그리고 축제를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오늘날 교통, 정보, 통신 등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은 매우 편리하여 졌지만, 반면에 우리의 삶을 이기적으로 만들어 오랜 세월,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전통을 차츰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태 가운데, 나라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거룩한 살신성인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의암 주논개 대축제'는 이 가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공연자들의 마음이 담긴 여러 행사를 통하여, 자녀들에게는 올바른 정신을, 가족간에는 서로 아끼는 마음을, 연인들에게는 더욱 큰사랑을 심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 1년간 군민들의 애정 어린 손길로 가꾸고 만들어낸 장수의 자랑거리들은 잊혀져가는 향수를 불러 일으켜 축제를 찾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흠뻑 적셔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구경 많이 하시고, 그리고 즐거운 일은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친지 분들에게도 널리 권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장수군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축하의 인사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0월 16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정길진

의암 주논개의 유적



▲ 논개사당(의암사)



▲ 의암주논개랑생장지 사적불망비



▲ 의암 주논개 생가지



▲ 논개석상



▲ 생장향수명비



▲ 최경희장군 추모비



▲ 의암사 기념관



▲ 논개생가



의암 주논개대축제 발자취





The Euiam Ju Nongae Festival

장수의 표상 (二德 · 三節 · 五義)

이덕(二德)



정신재 백장(靜愼濟 白莊)

- 1342 (고려 충혜왕 3년) 출생~1418. 10. 15 사망
- 휘는 장(莊), 자는 明允, 시호는 충숙(忠肅), 관향은 水原
- 1357 (공민왕 6) 성균관 진사시 포은 정몽주 선생으로부터 사사, 역학과 경서에 능함.
- 1396년(태조 5) 해미땅으로 유배
- 1405년(태종 5) 장계면 월강리 유배
- 고려왕조가 무너지자 치악산에 은둔. 태종(1405)이 이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세자 사부에 제수 특명을 하였으나 거절
- 1418 (태종 18) 황희 정승이 장수로 유배되어 백장선생을 조석으로 문안드림.
- 태종, 세종조 이조판서를 지낸 큰 손서 송보산과 김남택이 처조부를 모시기 위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함.
- 1828년 월강사 창건 : 백장을 주벽으로 송보산, 김남택, 최경희 등을 배향

◀ 정신재 백장 선생 묘소(장계면 금덕리)



방촌 황희(黃喜)

- 1363 (고려 공민왕 12) 출생~1452 (이조 문종 2) 사망
- 시호는 익성(翼成), 처음 이름은 수로(壽老)
- 1383. 진사에 합격, 1389. 문과에 급제, 1390. 성균관 학관
-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에 은거, 조선 태조의 간청으로 1394(태조 3) 성균관 학관
- 1400. 형조 · 예조 · 병조 · 이조판서, 우사간 대부
- 1418~1422. 세자(양명대군) 폐출에 반대. 장계면 금덕리 유배
- 1427. 좌의정, 1430. 탄핵으로 파직
- 1431~1449. 영의정
- 인품이 원만하고 생활이 청렴한 명신으로 후세 추앙
- 세종의 묘정에 배향, 파주의 방촌 영당, 상주의 옥동서원, 장수의 창계서원
- 황희의 묘 :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금승리

◀ 방촌 황희 선생 동상 (장수읍 방촌공원내)

삼절(三節)

의암 주논개(義岩 朱論介)

- 신안주씨 부(달문), 모(밀양박씨), 1574. 9. 3 출생(4甲戌)
- 1590. 장수현감 최경회와 결혼
- 1592. 임진왜란시 최경회가 장수에서 의병 모집
- 1593. 6. 29 제2차 전투에서 진주성 함락
- 1593. 7. 7 적장 게야무라 로꾸스케(毛谷村六助)를 안고 남강에 순절
- 논개에 관한 유적
- 1625. 남강바위 "義巖"이라 새김 (정대웅)
- 1722. 진주에 의암 사적비 (최진한)
- 1740. 진주에 의기사 건립(남덕하)
- 1846. 장수 논개사당에 "축석의기 논개생장향수명비" (정주석)
- 1954~1956. 남산에 의암사 건립
- 1960. 논개생가지에 "의암주논개랑 생가지사적불망비" (김상근)

- 1987. 생가지 이전
- 1980. 주촌 초등학교에 동상 건립
- 1986년 동상 이전 (배형식)
- 1955. 논개영정 (김은호 화백)
- 1955. 사액 "의암사" 현판 (함태영 부통령)
- 1996. 의암 신안주씨 논개지여 정려각 (김상두)
- 2000. 생가지 현위치 이전
- 기록
- 1621경 어우야담 : 유몽인
- 1617 (광해군 9) 동국신속 삼강행실록
- 1651 (효종 2) 양곡집 : 오두인
- 1779 (정조 3) 진주의기사기 : 정약용
- 1800 (순조원년) 호남절의록
- 1839 (헌종 5) 호남삼강록
- 1872 (고종 4) 호남읍지
- 1910 일사유기 : 장지연
- 1996 논개실기, 이애미 논개,
- 1997 장수의 표상



▲ 의암사(장수읍 두산리)



▲ 장수향교(장수읍 장수리)

충복 정경손(忠僕 丁敬孫)

- 1597 (선조 30) 정유재란 당시 주민이 피난을 모두 떠났음.
- 향교 지기인 정경손은 총·칼로 위협하며, 성전을 불사르려 한 왜군에게 몸으로 저지하자
- 그 기개에 감복한 왜장은 "어떤 사람이든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는 신표를 붙임.

- 이로 인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잘 보존된 향교가 됨.
- 1846. "호성 충복 정경손 수명비"를 향교 앞에 세움.
- 1976. 부강문(외삼문) 좌측으로 옮김.



▲ 타루공원(천천면 장판리)

순의리 백씨(殉義吏 白氏)

- 1678 (숙종 4) 3. 22 장수현감 조종면이 전주 감영 출장
- 현 장판리에 이르렀을 때 장끼 한 마리가 소리치며 뛰어 오름.
- 이에 말이 놀라 마부가 말고삐를 놓쳐 현감이 말과 함께 송탄천에 떨어짐.
- 배리는 다하지 못한 책무를 통감, 손가락을 깨물어 암벽에 핏과 말을 그리고 "墮淚"라 새기고 현감을 따라 순절함.
- 이후 전해오는 주민들의 구전에 의하면 마부는 통인백씨, 조백비라 부르고

- 있고 현재 타루각이 서있는 자리는 1922년 조백비가 토지 소유자로 되어 있음.
- 1802 (순조 2) 현감 최수형이 타루비를 세움.
- 1881 (고종 18) 현감 이헌승이 순의리비를 세우고 타루각을 세웠음.
- 1967 도로개설로 절벽의 흔적이 사라짐. ※ 통인 : 마부라는 노비의 명칭

장수의 표상 (二德 · 三節 · 五義)

오의(五義)



◀ 의사 전해산 추모비
(번암면 노단리)

전해산 장군(全海山 將軍)

- 1879. 오수면 국평리 출생, 1885. 번암 대론 이거
- 1910. 7. 19 대구 형무소 사망
- 1910. 9. 8 부인 자결
- 이름 基泓, 자는 수용, 호는 해산, 관향은 天安
- 1907년 군대해산 통분. 스스로 의병을 일으킴.
- 1908. "대동창의단" 의병장
- 광주, 무안, 함평, 나주, 장성, 순창 등 3년 71회 전투
- 1962. 건국공로훈장 복장 추서
- 대론 원촌 마을 앞 쌍분 분묘가 있음.
- 노단 번암초등학교 앞 추모비 세움.



◀ 의병대장 문태서 ·
박춘실 전적비
(계북면 양악리)

문태서 장군 (文泰瑞 將軍) 박춘실 장군(朴春實 將軍)

- 1880. 서상면 장수동 출생, 1897. 계북 당저 이거
- 1905. 을사보호조약후 의병활동에 참여
- 1912. 함양군 서상면에서 체포, 1913. 2. 4 옥중 자결
- 1962. 건국훈장 대통령장
- 분묘 : 대전 국립묘지
- 전적비 : 문태서 전승 기공비 (구천동)
- 의병장 문태서 기공비(안의)
- 1997. 4. 양악 입구에 전적비 세움.(김상두)
- 1875. 계북면 백암 출생, 1914. 6. 4 전주 형무소 자결
- 1905. 을사보호조약에 분개, 용담 구봉산 등지에서 의병 활동
- 1905. 5년간 60여 차례 전투
- 1977.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분묘 : 대전 국립묘지
- 1997. 4. 양악 입구에 전적비 세움.(김상두)



▲ 백용성 조사 생가지-죽림정사(번암면 죽림리)

백용성 조사(白龍城 祖師)

- 1864. 번암면 죽림리에서 출생, 1940. 열반
- 자는 白相圭, 관향 水原
- 14세에 남원의 덕밀암으로 출가
- 19세에 해인사에서 화월스님을 은사, 해조율사를 계사로 정식 출가
- 1911. 서울 선당교당을 세워 3천여명 포교
- 1919. 3. 1 독립선언서에 불교계 대표로 서명(만해 한용운 스님의 스승)
- 10만여권의 불교서적(경전과 어록) 발간
- 선농일치의 이상적 수도 주창(경남 함양 백운산에 30여정보의 화과원 조성)
- 1962. 건국공로훈장 복장 추서
- 1998. 3월의 독립운동가 지정 (국가보훈처)
- 1998. 4 유허비 건립 (번암 죽림)



▲ 정인승 선생 유허비(계북면 양악리)

정인승 선생(鄭寅承 先生)

- 1897. 계북면 양악에서 출생
- 1925~1935 고창고보 조선어, 영어를 가르침.
- 1936~1940 "한글 맞춤법 통일안" 수정 및 기초 위원
- 1953. 문교부 국어심의회 위원
- 1957.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 위원
- 훈민정음 연구, 용비어천가 해설, 동국정운 등을 연구하였고
- "눈의 글" "31의 글" 등 많은 저서를 남김.
- 1962. 건국공로훈장
- 1997. 유허비 건립(계북 양악)



▲ 장안산 군립공원
조선 8대 중산이기도 한 장안산은 가을철 광활한 억새밭과 정상에서 바라본 겨울철 설경이 절경이다.



▶ 덕산용소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으며 바위 사이로 흐르는 청류수는 은쟁반에 옥구슬 구르는 소리와 같다.



▶ 지지계곡
가을 단풍이 장관을 이루며, 산자수명하여 사계절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 방화동가족휴가촌 / 휴양림
오토캠핑장 시설을 갖춘 심산유곡의 휴양지로서 여름철 가족단위 캠프장으로 최적지이다.



◀ 어필각
(지방유형문화재 제143호)
조선조 영조 27년(1752년) 태종이 사간공 천곡 안성 선생에게 내려준 어필 왕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산서면 오성리에 창건 하였다.

▼ 와룡자연휴양림
와룡계곡의 자연림내에 연수의 집, 산막, 물·눈썰매장, 물놀이장, 잔디광장 등 각종 휴양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도심의 피로를 풀고 심신을 단련하기에 최적지이다.



▶ 토옥동 계곡
남덕유산의 여러 골짜기 중 가장 웅장하고 수려한 계곡이다.



청정지역 장수군 농·축산물은 안전합니다.



장수사과



장수 오미지



장수 태양초 고추



장수 메뚜기쌀



장수 청정인우



장수 토종흑돼지



장수 흑염소(흑보)



장수 전통 민과

“
자연이 함께 숨쉬는 푸른장수
변화하는 농협 · 함께하는 농협
”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
지부장 조 옥 현

장수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고강영

장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성근

장수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최병옥

KRA

사랑의 날개를 활짝 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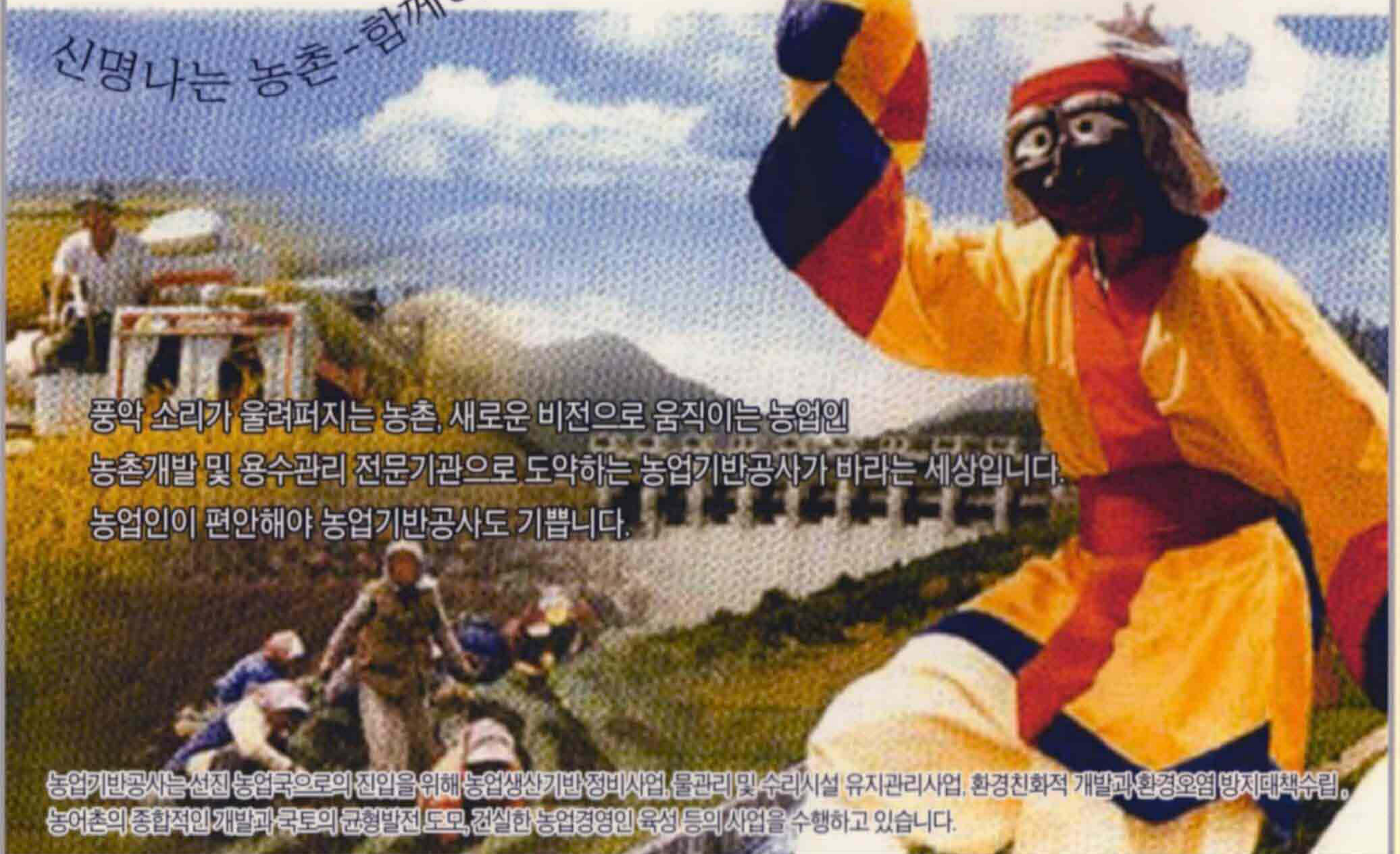
푸른 희망을 가꾸는 공익기업, KRA는 경주의 생동감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수익을 생명존중 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익증진 활동에 사용하여
사랑과 행복이 커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KRA 한국마사회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농업기반공사 무진장지사

신명나는 농촌-함께하는 농업기반공사



풍악 소리가 울려퍼지는 농촌, 새로운 비전으로 움직이는 농업인
농촌개발 및 용수관리 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농업기반공사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농업인이 편안해야 농업기반공사도 기쁩니다.

농업기반공사는 선진 농업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물관리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환경친화적 개발과 환경오염 방지대책수립, 농어촌의 종합적인 개발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건설한 농업경영인 육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논 개

수주 변영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붓는 情熱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우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릿답든 그 蛾眉
눅게 흔들리우며
그 石榴 속가튼 입설!
[죽음]을 입맛추엇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우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江물은
기리기리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우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